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년 제8차 이사회 회의록

소집통보일	2024.9.12.(목)		
구 분	이 사	감 사	계
임원정수	9명	2명	11명
재적임원	8명	2명	10명
참 석	8명	2명	10명
불 참	0명	0명	0명

1. 일 시 : 2024.9.26.(목) 14:00 ~ 18:10

2. 장 소 : 조선대학교 본관 2층 법인회의실(2137호)

3. 임원 참석 현황

• 참석 임원

- 이사 : 이사장 김이수, 이사 김선아, 이사 임동윤, 이사 신윤숙, 이사 이근우, 이사 박상규, 이사 정병준, 이사 조성철 (이상 8명)
- 감사 : 감사 이현필, 감사 김정호 (이상 2명)

• 불참 임원

없 음

4. 배석 현황

- 법 인 사 무 처 : 사무처장 정권철, 법인팀장 조은정
(법인팀 윤진혁은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배석함)
- 조 선 대 학 교 : 총장 김춘성, 기획처장 박종락, 교무처장 황석승, 재정예산팀장 송병준
- 조 선 이 공 대 학 교 : 총장 조순계, 기획처장 문인섭, 교무입학처장 이응재, 기획예산팀장 손용준, 교무팀장 박정철
- 조 선 간 호 대 학 교 : 총장 박명희, 기획산학처장 최미정

- 중 고 등 학 교 부속고등학교 교장 천일석, 여자고등학교 교장 김연희, 부속중학교 교장 박충훈, 여자중학교 교장 김종채, 부속고등학교 행정실장 장홍철, 여자고등학교 행정실장 김성근, 부속중학교 행정실장 한강, 여자중학교 행정실장 노정아

5. 심의·의결 안건

-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3)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4)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5)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6)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안)
- (7)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 (8)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9)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 (1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 (1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개정(안)
- (12)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
- (13)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 (14)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6. 보고사항

- (1)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 (2)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안) 보고
- (3) 조선대학교 행정조직 슬림화 관련 현황 및 계획 보고
- (4)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
- (5)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분전환에 관한 보고
- (6)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 만료 보고

7. 회의 내용

■ **성원보고 및 개회 선언** : 정권철 사무처장이 성원을 보고(이사 7명, 감사 2명 출석)하자, 김이수 이사장이 이를 확인하고 「정관」 제32조(이사회회의 개회 및 의결정족수)에 의거하여 개회를 선언함

■ **전차 이사회 회의록 보고** : 정권철 사무처장이 전차 이사회 회의록의 주요 결의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김이수 이사장이 이사들의 의견을 물어 이의 없음을 확인함





1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천일석 교장이 기정 예산액 7,445,269천원보다 1,035,797천원 증액된 8,481,066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신윤숙 이사가 사립학교보조금수입 중 3D 프린팅 환경 개선 사업비가 학생들의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질의하자, 천일석 교장이 정규 수업 시간보다는 동아리 활동이나 기타 학교에서 자체 개발한 정규 수업 시간 외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3D 프린팅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답변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481,066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임동윤 이사가 14시 5분에 회의장에 입장함>

2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연희 교장이 기정 예산액 7,588,967천원보다 761,367천원 증액된 8,350,334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신윤숙 이사가 기타이전수입 중 일경험프로그램 운영비의 내용에 대해 질의하자, 김연희 교장이 급식 조리원이 연가를 사용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하루 인력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350,334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3호 의안.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박충훈 교장이 기정 예산액 4,539,653천원보다 627,288천원 증액된 5,166,941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66,941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4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김종채 교장이 기정 예산액 3,704,149천원보다 1,030,791천원 증액된 4,734,940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 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임동윤 이사가 학부모부담수입 감액 사유에 대해 질의하자 김종채 교장이 우유 급식이나 체육복 구입비는 학부모 부담 항목으로, 우유 급식의 경우 희망자가 없어서 계획을 세웠다가 시행하지 못해 감액되었다고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4,734,940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1.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종락 기획처장이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1조(예산의 목적의 사용금지) 및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13조(예산의 전용)에 의거, 등록금 회계 목간 전용으로 19,411천원을 예산전용 하였으며 세부 내용을 보고함

논의사항 : 박종락 기획처장이 법인에서 대학으로 진출된 직원들로 인해 성과상여금 집행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예산전용이 이루어졌음을 설명하자, 임동윤 이사가 법인에서 대학으로 진출된 직원 3명에 대해 질의함. 조은정 법인팀장이 법인과 대학 간 3명의 전입 전출 교류가 있었으며 법인 인원은 상대적으로 상위 직급이었고, 대학 인원은 하위 직급이었음을 설명함

기타 논의사항 :

- ① 조성철 이사가 신임 법인사무처장 문제와 관련하여, 인사 문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장이 이사들과 해당 사항을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것에 아쉬움을 표함. 이어 법인사무처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므로, 인사 절차와 과정을 이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선임 절차를 수행했어야 했다고 발언함
- ② 임동윤 이사가 조선대학교 내에서 발생한 일련의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그 발단에는 전임 사무처장 인사 절차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하며, 이사들이 참여하는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신임 사무처장 선임 절차를 수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 ③ 김이수 이사장이 교육부와와의 소송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임 사무처장 임명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그 당시 전임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도 일부 이사들이 강력히 추천해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함. 이어 신임 사무처장을 임명할 때 이사들에게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고 하며, 신임 사무처장은 대학 구성원들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어 대학과의 소통에 있어 적합한 인물이라고 판단하여 선임하였다고 덧붙임
- ④ 조성철 이사가 법인사무처장의 선임 절차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공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발언하자, 정병준 이사가 인사권이 있는 이사장이 선임하였는데 조성철 이사가 말한 적절한 절차가 무엇인지 질문함. 이에 조성철 이사가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노조나 지역 주민을 포함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며, 현 인사 방식이 부적절하다고 재차 강조함.

정병준 이사가 조성철 이사의 지나치게 강한 어조로 발언하는 태도가 강요로 느껴질 수 있다며 발언 태도에 대해 지적하자 조성철 이사가 고성으로 "KTX 타고 가세요", "당신이 조대에 대해 뭘 안다고", "당신 대학에 가서 당신 일이나 똑바로 해"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정병준 이사의 발언에 강한 이의를 제기함. 정병준 이사가 자신이 조성철 이사보다 먼저 이사회에 참여해왔고, 이사회 운영 방식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며 조성철 이사의 본인을 향한 발언이 매우 부적절하고 이사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함. 이에 조성철 이사가 자신이 10년간 학원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고, 이후에도 30년간 국책 사업 유치 등 자신의 활동과 노력으로 대학 발전에 기여해왔음을 강조하며, 정병준 이사가 본인의 발언을 중단시키고 이사장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함. 이어 본인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해 줄 것을 요청함. 박상규 이사가 이사회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예의를 지키는 발언 태도를 가져줄 것을 당부함

결의사항 : 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예산전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보고사항 2.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안)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안)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종락 기획처장이 신입생 충원율 및 재학생 충원율을 반영한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 기준 및 특수대학원 학과 폐과 근거 규정 시행 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시행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논의사항 :

- ① 박상규 이사가 특수대학원 정원을 각 과별로 배정하지 말고, 정원을 통합하여 유연하게 운영하면 학과 폐과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발언하자, 김춘성 총장이 현재도 학과별로 모집하지 않고 특수대학원별로 정원을 통합하여 모집하고 있다고 설명함. 또한 학과 폐과는 소수 학생일지라도 수업을 운영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이어 박상규 이사가 정원이 부족해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하며, 단기적인 입학자원 부족을 이유로 폐과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자 김춘성 총장이 폐과 대신 인원 조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면서도, 특수대학원 자체의 규모 축소를 위해 폐과는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임
- ② 임동윤 이사가 우리 대학은 국립대학과 달리 등록금 수입만으로 특수대학원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소수의 학생을 위해 강의료를 지급하고 때로는 교수를 채용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부담된다고 발언함. 또한, 일반대학원이 정원의 60% 정도만 채우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은 학생 유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우리 대학 출신 교원의 양성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발언함. 타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등록금을 대폭 인하하여 학생 수를 채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대학도 등록금을 낮추거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대학원생 유입을 늘리고 운영비 절감을 위해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의 통합 등 특단의 조치를 주문함
- ③ 김춘성 총장이 임동윤 이사의 발언에 대한 답변으로 일반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통합을 추진하는 한편, 활성화 노력이 이루어지고 성과가 나타나는 특수대학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활성화를 지원해줄 계획도 있다고 함. 본교 출신 대학원 입학생에 대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대 지원을 통해 본교 출신 교원의 양성률을 장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추가로 답변함

- ④ 신윤숙 이사가 각 특수대학원장들에게 특수대학원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통합을 통해 구조를 슬림화해야 한다고 발언함. 일부 특수대학원의 경우 정원이 극히 적는데 이러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사립대학 재정 상황에 맞지 않아 이에 대해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김춘성 총장이 일부 특수대학원의 경우 과거 국책 사업을 통해 장학금을 제공하며 운영되었으나, 사업 종료 이후 그대로 방치된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이번에 조정을 통해 정리할 계획이라고 답변함

결의사항 : 조선대학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조정(안)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보고사항 3. 조선대학교 행정조직 슬림화 관련 현황 및 계획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행정조직 슬림화 관련 현황 및 계획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박종락 기획처장이 최근 10년간 정규직원 퇴직 및 신규 임용 현황을 보고하고 행정슬림화를 위한 부서 통합 계획의 일환으로 통합 학생민원센터, 통합 행정동 및 통합 교학팀 구축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보고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논의사항 :

- ① 김이수 이사장이 통합 행정동 구축 장소로 중앙도서관 이외에도 국제관을 검토하여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그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함

김춘성 총장이 국제관 1층에 대한 검토 요청이 있었으나, 시설팀에서 해당 건물이

효용성이 낮고 공사비가 과다하게 들 것으로 판단하여 자세한 검토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함. 대신, 도서관 1층에 학생들의 공간을 해치지 않도록 배치하여 추진 중이라고 보고함. 김이수 이사장이 이사들의 관심이 많은 사안이니, 검토를 확실히 해달라고 당부함

② 임동운 이사가 행정 조직 슬림화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발언함. 학생회관에 학생 민원 관련 부서들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데, 도서관 1층에 통합 학생민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함. 성균관대학교 모델처럼 모든 행정 부서를 한 곳에 모아 인력 감축과 행정 효율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강조함. 이어 국제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가변벽을 제거하여 공간을 확장할 수 있으며 이는 그다지 큰 공사비가 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함. 해당 계획을 빠르게 추진하지 않으면 총장 재임 기간 동안 완수하기 어렵다고 지적함

③ 김선아 이사가 도서관 1층에 통합 학생민원센터를 설치하려는 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며, 다른 대학들이 도서관을 확장하거나 신축하는 상황에서 도서관 공간을 축소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발언함. 또한, 통합 학생민원센터의 공간 배치에 대해 학사팀, 장학팀, 행정복지팀, 글쓰기 센터가 분리되는 점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않으며,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함. 접근성 측면에서도 특정 단과대학 학생들의 접근이 어려워 중앙도서관은 최적의 위치가 아니며, 도서관을 민원센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다시 강조함. 아울러, 조직 슬림화를 위해서는 직원 감축 및 팀장 보직 감소 등 노조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들이 있어, 이러한 문제를 먼저 해결할 것을 제안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학생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당 부서들을 최대한 인접한 위치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하고, 통합 행정동이 추진되면 노조와의 협의도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답변함

④ 임동운 이사가 조직 슬림화의 본질에 대해 다시 강조하며, 현재의 방식으로 진정한 슬림화를 이룰 수 없다고 발언함. 슬림화는 단순히 공간을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를 축소하고 예산을 절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함. 특히, 계속해서 조직이 비대화됨에 따라 팀장 직책도 함께 늘어나면서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직의 슬림화를 위해서는 팀장 보직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박종

락 기획처장이 이에 대해 본격적인 통합 행정동 추진 이전에 이번 통합 학생민원센터
 구축 계획을 시범사업으로 생각해달라고 설명하며 팀장 수는 향후 업무 분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임.

- ⑤ 임동윤 이사가 학생처가 이미 학생회관 건물에 집중화되어 있어 추가적인 시범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성균관대 모델을 벤치마킹해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함. 준비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실행을 미루지 말고, 통합 행정동
 구축 장소만 명확히 정하면 그 이후는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함.

박종락 기획처장이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하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계
 획을 세우고 있다고 답변함

- ⑥ 임동윤 이사가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 이사회가 승인 조건으로 인력
 감축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오히려 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된 점을 지적함
 또한, 현재까지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구축 비용의 사용처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을 운영하는 총장을 관리·감독하는 것은 이사
 회의 책무이지 학사개입이 아니라고 발언함. 마지막으로, 통합 학생민원센터 구축이
 학생들에게 보여주기식 인심을 얻으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조언함. 조성철 이사
 가 조직 슬림화를 위해 통합 행정동을 운영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며, 임동윤 이
 사의 의견에 동의함

기타 논의사항 :

- ① 박상규 이사가 대학 운영 현안과 관련하여 총장에게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 그리고 긴급한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을 질의함. 최근 범대위 시위와 관련된 상
 황을 언급하며, 초기에는 글로컬 30 사업 실패로 인해 총장과 이사장의 사퇴를 요구
 하던 상황이 점차 이사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함. 이에
 대해 총장이 어떤 대응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큰 틀에서의 방안을 듣고 싶다고 함.
 또한 범대위 시위와 현수막 문제와 관련하여, 총장이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위를 종
 결시키고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함. 현 상황이 촉발된 배
 경에는 일부 교수들의 왜곡된 의견이 작용했다고 보고 총장이 이를 명확히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교수들이 학교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총장이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함

- ② 조성철 이사가 현재의 학내 갈등은 이사장, 총장, 대학 집행부 의 내부 간 문제에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신축병원 건립, 의약품 합작도매법인 문제, 인사 문제 등 대학 구성원들이 제기한 다양한 이슈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함.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사장과 총장이 구성원들과 소통하고 논의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함. 대학 구성원들이 법인에 대해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사과할 부분은 사과하고, 협의할 부분은 협의함으로써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법인과 대학 구성원 간의 접점 마련이 부족해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구성원들의 문제 제기를 단순히 잘못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고 첨언함
- ③ 김춘성 총장이 대학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운영을 위해 이사회와 협력하는 것이 자신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함. 또한, 시위와 현수막 문제에 대해서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해왔지만, 대학의 여러 제단위가 모여 대학을 운영해 온 역사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함. 이사회의 협조를 통해 대학을 운영하는 것이 본인의 책무이며, 앞으로도 중간에 필요한 역할이 있다면 수행할 것이라고 발언함
- ④ 김선아 이사가 대학이 학생 유치를 위해 많은 홍보비를 쓰고 있지만, 현수막 하나로 모든 노력이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하며, 현 상황에서 학부모가 과연 우리 대학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할지 의문을 제기함. 총장이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함. 박상규 이사가 이에 덧붙여 총장이 현재 학내 문제를 능력 밖의 일로 여기며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비판하며, 외부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김정호 감사 또한 대학 외부에 결린 혐오적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시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빠른 조치를 취해 제거되길 바란다고 발언함
- ⑤ 조성철 이사가 대학과 법인 간의 문제에 대해 해결을 위해 그간 노력해왔지만 현재의 갈등 사태는 법인과 이사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해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어 의약품 합작도매법인 문제와 같은 큰 문제들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지

적하며, 총장을 압박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또한 글로컬 대학 30 탈락 역시 이사회와 법인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이사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강조함. 이사회와 법인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갈등의 원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⑥ 박상규 이사가 조성철 이사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글로컬대학30 사업의 주체는 대학이며, 법인은 사업계획서 작성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다고 설명함. 총장이 4년 동안 학교 운영을 하겠다고 당선된 만큼,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거나 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지적함. 현재의 시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총장이 더 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함.

또한 김이수 이사장이 대학을 사유화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으며, 이러한 비난이 명예훼손에 가깝다고 비판함. 대학의 총장이 대학 경영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의 지지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함

- ⑦ 정병준 이사가 이사장을 향한 인격 모독과 명예 훼손이 담긴 현수막이 학교에 걸린 상황을 두 달간 방치한 것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고 비판함. 총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학내 민주주의와는 무관한 폭력적인 언어라고 지적함. 또한,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 대학의 평판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며, 국책 사업에서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함. 마지막으로 총장이 이 문제를 방관하지 말고, 대학의 명예와 미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조성철 이사가 발언한 의약품 합작도매법인 문제에 대해 입찰 과정에서 공식적인 이의 제기나 고소·고발이 없었고,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확인하며, 부정이나 결탁으로 사법당국에 고발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증거 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함. 또한, 절차를 뒤집으려는 시도는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현재는 절차의 공정성을 신뢰해야 할 때라고 발언함

- ⑧ 조성철 이사가 글로컬대학 30 사업과 관련해, 타 사립대학의 경우 이사장을 중심으로 대학이 혼연일체가 되어 나서고 있으며, 이는 정무적인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 문제는 누구의 책임을 따질 것이 아니라, 모두가 힘을 합쳐 성과를 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함.

또한, 5.18 문제는 5.18 부상자회가 제기한 것으로, 이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함. 학교 구성원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여겨야하며 현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사회가 구성원들의 주장 중 받아들일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그들을 설득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함

- ⑨ 김정호 감사가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의 내용이 단순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반헌법적인 행위라고 발언함. 헌법에는 타인의 명예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광주 학살의 원흉" 등의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를 심각하게 일탈한 것이라고 설명함. 또한, 5.18 부상자회와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며, 이 문제는 이사장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함. 이사장을 향한 표현들이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품격을 잃은 언어라며, 이와 같은 혐오적 표현은 학내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 제기와는 다른 차원이라고 강조함. 이러한 표현은 포털 사이트에서도 삭제될 수준임을 언급하며, 총장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촉구함

김춘성 총장이 이에 대해 대응을 했지만, 현수막이 계속해서 다시 걸리며 상황이 더 악화된 점을 설명함. 또한, 더 많은 현수막이 붙을 것을 우려해 협상도 시도했으나,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며, 대학 외부로 노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잡을 의지를 표명함

결의사항 : 조선대학교 행정조직 슬림화 관련 현황 및 계획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추가 보고사항 : 박종락 기획처장이 조선대학교-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합 추진 경과사항에 대해 보고함

보고사항 4.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황석승 교무처장과 조은정 법인팀장이 「정관」 제40조(임용) 등에 따라 교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을 임용하였다며 임용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 조선대학교 재임용 : 경제학과 부교수 김정현 외 49명
- 조선대학교 승진임용 : 경제학과 부교수 김정현 외 19명
- 조선대학교 정년보장 : 경제학과 김정현 외 8명
- 조선대학교 복직 : 식품영양학과 장해춘 외 1명
- 조선대학교 휴직 : 식품영양학과 장해춘 외 1명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기간제교사 채용 : 박세라

논의사항 :

① 임동윤 이사가 승진자 20명 중 9명이 조기 승진을 한 점을 지적하며 이전에도 이사회에서 조기 승진 요건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별다른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며,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함

이에 황석승 교무처장이 이공계와 인문사회 분야를 비교했을 때, 이공계에서는 약 40%가 조기 승진을 하지만 인문사회 분야에서는 거의 조기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함. 이 문제에 대해 교수평의회 등과 논의 중이며, 아직 공식적인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덧붙임.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으며,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함

임동윤 이사가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 조기 승진 요건을 검토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대학의 승진 제도가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하자, 황석승 교무처장이 조기 승진을 하지 못한 교수들이 자괴감을 느끼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으며, 과거 교무위원회에서 승진 제도 개선안이 부결되었던 상황 등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함

② 박상규 이사가 연구 역량이 강화되어 많은 교수들이 승진한다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승진 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조기 승진의 타당성을 확보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③ 조성철 이사가 조기 승진 제도가 주로 논문 성과를 기반으로 평가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학생 지도 활동, 국책 사업, 학사 관련 성과 등 대학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를 승진 평가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발언함. 또한, 논문 성과만으로 승진한 교수들이 타 대학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인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대학 집행부가 이 문제를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신속하게 해결할 것을 촉구함

황석승 교무처장이 이에 동의하며, 산학협력이나 취업 성과 등도 승진 평가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고 답변함

결의사항 : 산하학교 교원 임용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5호 의안.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최미정 기획산학처장이 본 예산액 10,736,281천원보다 448,956천원 증액된 11,185,237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 ① 신윤숙 이사가 현장 재현형 환경 구축 사업에 대해 질의하자 박명희 총장이 응급 중 환자 간호 인력 양성을 위해 실제 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의약품과 장비를 모두 세팅하여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답변함
- ②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 - 조선간호대학교 간 통합 진행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을 청취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

액 각각 11,185,23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15분에 정회를 선언함>

<김이수 이사장이 16시 23분에 회의를 속개함>

6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과의 임금 교섭을 통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의 보수 일원화를 위한 보수 인상 등을 잠정 합의하였다고 하며,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을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의의가~~ ~~결의를~~ ~~확안~~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7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강의전담교원 및 교육중점교원 보수 일원화를 위한 보수 인상 등 2022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 사항을 반영하고, 정년계열 연봉제 전임교원에게 경력 인정 환산 지급액 추가 지급, 연봉제 교원에게 급식비를 추가로 지급하고자 한다고 하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경력 인정 환산 지급액을 본봉에 산입할 경우, 연봉 인상시 교원별 연봉에 차

이를 발생시키므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지급액을 수당으로 산입하는 식의 별도 조문 마련을 통해 규정을 명확히 하기로 함. 경력 인정 환산 지급액의 경우 보완하여 다음 이사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산·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함

8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 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손용준 기획예산팀장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 29,021,683천원보다 498,119천원 감액된 28,523,564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523,564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9호 의안.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이응재 교무입학처장이 의원 면직(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 1명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45조의4(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면직임용 제청하고자 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면직 임용(의원 면직) : 보건의료행정과 교수 김남중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5.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분전환에 관한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분전환에 관한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조순계 총장이 비정년계열 (비정년) 교원의 정년계열 전임교원 신분 전환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대학의 조직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보고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논의사항 :

① 박상규 이사가 비정년계열 (비정년) 전임교원 신분 전환 자격에 대해, 10년 이상 근무하고 그간 교육 업적 평가와 강의 평가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하여 이미 충분히 자질을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구 실적 면에서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지적함

조순계 총장이 이에 동의하며, 전환 대상자가 많지 않고 해당 교원들은 교육 업적 평가와 강의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우수한 교원이라고 설명함. 3년에서 5년으로 연구 실적 평가 기간을 완화하고 실적물의 양을 300%에서 200%로 낮추는 방안을 개인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발언함

② 김이수 이사장이 연구 실적과 실적 평가 기간을 재검토하여 안을 상정할 것을 요청함

결의사항 : 조선이공대학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신분전환에 관한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10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 자금예산(안) 중 일반업무회계는 본 예산액 7,947,285천원보다 17,812천원 증액된 7,965,097천원, 수익사업회계는 본 예산액 3,922,108천원 보다 191,949천원 증액된 4,114,057천원으로 편성하였다면서 관항목별 편성 사유 및 산출내역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① 임동윤 이사가 법인의 소송 비용과 관련해,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몇 건인지, 그리고 연간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질의하자 정권철 사무처장이 현재 법인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진행 중인 소송이 3건 있으며, 대학에서도 교원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답변함. 소송 비용은 사건마다 선임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은 확인 후 제공하겠다고 설명함

임동윤 이사가 대학과 법인이 소송 비용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보 확인이 필요하다고 발언함

조은정 법인팀장이 교원 소송의 경우, 임명권이 법인에 있기 때문에 대학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라도 법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고함. 연간 소송 비용은 약 7천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고 부연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7,965,097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

지출 총액 각각 4,114,05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함

11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개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개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2023년 사학기관 실태점검 및 회계감리 이행점검 결과에 따라 조선대학교 직원 성과상여금 지급 세칙의 직급별 지급 및 인원배정 기준을 참조하여 법인 직원 상여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며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논의사항 : 임동윤 이사가 법인 직원의 승진 및 보직 임명 절차에 대해, 과거 이사회에서 자체 규정을 마련하라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함. 과거에 주먹구구식으로 승진이 이루어진다는 비판이 있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함

정권철 사무처장이 현재 이사들이 승진 심사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자체 직원 인사평정 내규는 구비되어 있고, 상급자들이 상급자 평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임동윤 이사가 최소한 상위 직급 직원의 임명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언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동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2호 의안.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법인팀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정관 제57조(징계위원회의 조직),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조직 및 관할),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3조(조직 및 관할), 산하 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 확정 및 교직원 인사발령에 따라 산하 중·고등학교의 교원 및 직원 징계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자 한다며 변경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13호 의안.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조은정 법인팀장이 「교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10조(징계요구) 등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래와 같이 교원 징계를 제청한다며 제청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함

- 징계 제청 :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사 전은상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함

보고사항 6.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 만료 보고

보고사항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 만료 보고를 상정함

보고 내용 : 조은정 법인팀장이 현 감사의 임기가 2025.1.17.자로 만료가 예정됨에 따라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이사회에서 후임 감사를 선임하고 임기 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취임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면서 보고 사유 및 주요 내용에 대해 보고함

결의사항 : 학교법인조선대학교 감사 임기 만료 보고는 원안대로 접수함

추가 논의사항 : 공익이사 후보자 추천 요청에 대한 광주광역시 회신 내용, 사안조사 결과 통보 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 결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함

<정병준 이사가 17시 45분에 회의장에서 퇴장함>

14호 의안.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

안건 상정 : 김이수 이사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을 상정함

제안 설명 : 정권철 사무처장이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를 선정하기로 하였으며 제안 설명함

결의사항 : (출석 이사 전원의 이의가 없음을 확인 후)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함

폐회 선언

폐회 선언 : 김이수 이사장이 더 이상의 질의 사항이 없음을 확인한 후 폐회를 선언함

【결 의 사 항】

1.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481,066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2.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8,350,334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3. 조선대학교부속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5,166,941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4. 조선대학교여자중학교 2024학년도 학교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자금 예산 세입·세출 총액 각각 4,734,940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5. 조선간호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11,185,23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6.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수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합의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7.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직원 보수 규정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다.
8. 조선이공대학교 2024학년도 교비회계 제2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 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수입·지출 총액 각각 28,523,564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9.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이공대학교 교원 임용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0. 학교법인조선대학교 2024학년도 법인 일반업무회계 및 수익사업회계 제1회 추가경정자금예산(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일반업무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7,965,097천원, 수익사업회계 수입·지출 총액 각각 4,114,057천원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다.

11.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개정(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직원 상여금 지급 내규 신·구조문 대비표’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2.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학교법인조선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변경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3.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안)은 출석이사 8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별첨 ‘조선대학교여자고등학교 교원 징계 제청 내역’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다.

14. 금회 이사회 회의록 간서명 이사 선정(안)은 출석이사 7명 전원의 동의와 찬성으로 김이수 이사장, 김선아 이사, 신윤숙 이사가 날인하기로 가결하다.

※ 임동윤 이사는 1호 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음

※ 정병준 이사는 14호 의안 심의에 참여하지 않음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함.

2024. 9. 26.

이 사 장 김 이 수 김이수

이 사 김 선 아 김선아

이 사 임 동 윤 임동윤

이 사 신 윤 숙 신윤숙

이 사 이 근 우 이근우

이 사 박 상 규 박상규

이 사 정 병 준 정병준

이 사 조 성 철 조성철

감 사 이 현 필 이현필

감 사 김 정 호 김정호